"생활지도 불만" 수업 거부 파문

광주 모 여상고생들 3시간 운동장 시위

학생부장의 생활지도 방식에 불만을 품은 광주 S여상 학생들이 수업거부에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S여상 1~3학년 학생 500여명은 16일 오전 8시30분 시작되는 1교시부터 수업을 거부한 채 운동장에 나와 학교 측과의 대화를 요구했다. 교실에 남아 있는 학생들이 일부 있었지만 사실상 모든 학년·학급의 수업이 중단됐다. 학생들은 학교 측과 대화 후 3시간이 지난 이날 낮 12시께 교실로 복귀했다.

학생들의 운동장 시위의 발단은 지난 12~13일 1박2일 동안 진행된 3학년 현장 체험학습에서 비롯됐다. 12일 거제도 옥포조선소와 외도 등을 견학한 3학년 학생들은 구례군 산동면 모 리조트에서 1박을 한 뒤 광주로 돌아올 예정이었다.

이날 밤 3학년 학생 일부가 인근 상점에서 술을 사 숙소로 반입하려다 이 학교 L 학생부장에게 발각됐다. 학생들은 "술에 취한 학생부장이 해당 학생들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엎드려 뻗쳐' 상태에서 각목을 휘두르는 등 과도한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3학년 A양은 "체험학습 때 뿐 아니라 평소에도 생활지도라는 명목으로 훈화할 때 부모님을 언급하는 등 인권을 모독하는 방식의 언어폭력을 구사해 참기 힘들었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학교 측과의 대화에서 ▲학생부장 교체 ▲강제적 보충수업 폐지 ▲과도한 생활지도 규정 완화 ▲언어 폭력 금지 ▲학생 인권 보호 등을 요구했다. 학교 측의 생활지도 규정은 치마 길이는 무릎까지, 머리는 염색 및 퍼머 금지 등으로 정해져 있다.

L 학생부장은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체험학습 때 잘못된 행동을 한 아이들에게 지도 차원에서 목덜미를 쓰다듬은 정도이지 폭력을 휘둘렀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해명했다.

학교 측은 학생들의 이같은 요구에 대해 학생부장 교체를 검토하고, 학생 대표와 협의 하에 보충수업을 강제하지 않기로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시교육청은 S여상에 장학사를 파견, 학생과 교사 등의 주장을 청취하는 등 진상 파악에 나선 뒤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장·마·시·작

17일부터 비가 내리면서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은 16일 "광주·전남지역은 6월 하순까지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흐리고 비 오는 날이 많겠다"고 예보했다. 기상청은 또 "7월 초에는 장마전선이 남북으로 이동하면서 지역에 따라 일시적인 저온 현상이 나타나는 등 날씨의 변화가 크겠으나 7월 중순에는 장마전선이 일시적으로 소강상태를 보이겠다"고 전망했다. 특히 올해 장마의 경우 지난해보다 4일 빨리 시작됐으며, 평년에 비해서도 5~6일 가량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장마기간(6월 중순~7월 중순)의 기온은 평년(17~23도)보다 높겠으며, 7월 초에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낮을 것으로 전망됐다. 또 올 장마기간 동안 강수량은 평년(151~376㎜)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나, 7월 중순의 강수량은 평년보다 다소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비는 19일까지 내린뒤 일시 소강상태를 보이겠으나 21일부터 계속 내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상청은 지난해까지 장기 예보를 통해 장마 시작과 종료 시점을 모두 예보했지만 최근 몇년 사이 장마가 끝난 후에도 많은 비가 내리면서 장마기간과 우기를 구분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부터 장마가 끝나는 시점을 예보하지 않기로 했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장마를 부르는 비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 비가 내리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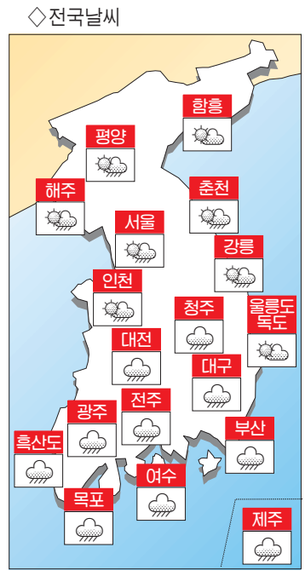
6월 17일 (음 5월 14일)

◇전국날씨

광 주	흐리고 한두차례 비	19~26℃
목 포	흐리고 한두차례 비	19~23℃
여 수	흐리고 한두차례 비	18~22℃
완 도	흐리고 한두차례 비	18~22℃
구 례	흐리고 한두차례 비	19~27℃
해 남	흐리고 한두차례 비	18~23℃
장 흥	흐리고 한두차례 비	18~23℃
고 흥	흐리고 한두차례 비	18~23℃
순 천	흐리고 한두차례 비	18~26℃
영 광	흐리고 한두차례 비	18~24℃
진 도	흐리고 한두차례 비	19~24℃
전 주	흐리고 한두차례 비	19~26℃
남 원	흐리고 한두차례 비	18~26℃
흑산도	흐리고 한두차례 비	16~20℃

서해남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1.0~2.0m
먼바다=북동~남동풍 파고 1.0~2.5m
남해서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1.0~2.0m
먼바다=북동~남서풍 파고 1.0~2.5m

목 포 밀물 01:23 13:02 썰물 06:47 18:29
여 수 밀물 07:53 20:46 썰물 02:18 13:55



▲해뜸 05:18 ▲해짐 19:49 ▲달뜸 18:52 ▲달짐 03:37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18(수)	19(목)	20(금)	21(토)	22(일)	23(월)
날 씨						
최저/최고	20/24	20/27	19/28	20/27	20/25	20/28

광주 S여상 학생들이 16일 오전 수업을 거부하고 운동장에 모여 학교 측과 대화를 요구하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

옥션 개인정보 유출 피해 광주 첫 233명 손배 소송

지난 2월 대규모 해킹사고를 당한 옥션의 개인정보 유출 건과 관련, 소비자들의 집단 소송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광주에서도 처음으로 옥션 회원들이 '옥션'을 상대로 피해보상 소송에 나섰다.

법무법인 21세기 종합법률사무소는 '옥션' 해킹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광주지역 소비자 233명의 소송 대리인 자격으로 '옥션'을 상대로 1인당 1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17일 광주지법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소장에서 "옥션의 개인정보 관리소홀로 개인정보가 유출됨에 따라 원고들은 은행 계좌번호·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등 불편을 겪었고, 정보유출 사건 이후 보이스피싱, 스팸전화, 스팸메일 급격히 증가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 원고들에게 위자료 7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유출된 개인정보의 평가액에 대해 원고별로 각 30만원 정도는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옥션은 1998년 4월 국내 최초의 인터넷 경매사이트로 시작해 현재 경매는 물론 즉시 구매, 고정가 판매 등 다양한 방식으로 물품을 구매 또는 판매할 수 있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로, 지난 2월 해킹사고를 당한 옥션은 1천81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담양군 승진 공무원 2명 체포 조사

이정섭 군수 비서진 3명 집 압수수색

이정섭 담양군수의 인사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승진 공무원들을 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이 군수 비서들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6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3일 담양군 공무원인 정모씨와 김모씨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들을 체포, 승진 과정에서 돈이 오갔는지에 대해 조사한 뒤 석방했다.

정씨 등은 지난해와 올해 초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했으며, 인사청탁 대가로 금품을 건넸는 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이 군수의 비서실장과 수행비서 등 비서진 3명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시간이 좀 흐른 사건이라 서로 말을 맞춘 흔적이 상당히 보이고 있어 수사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확실한 단서들을 찾기 위해 추가로 관련 공무원을 체포하고 압수수색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 군수의 인사비리 의혹과 관련, 특별채용을 대가로 사돈으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이 군수의 친형과 이 돈을 받아 아버지의 빚을 갚도록 한 이 군수의 아들을 구속했지만 이 군수는 아직까지 소환하지 않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대입 농어촌전형 市 확대는 위헌" 헌소

대학입시에서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의 지원자격을 기존 읍·면 단위에서 시 지역의 동(洞) 단위 소재 고교 출신자에게까지 확대한 것은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지원자격 확대 적용 방지를 위한 전국 읍·면 단위 대책위원회'는 지난 13일 "지원자격 확대는 농어촌 학생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제도 도입 취지에 맞지 않다"며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관련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고 16일 밝혔다.

대책위는 충남 홍성고 등 전국 읍·면 단위 50여개 고교 학부모 및 학생들로 구성돼 있다. /연합뉴스